

투데이 칼럼

철저한 준비와 함께 봄철 안전한 산행을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분출하듯 유명산으로 들르, 관광지로, 문화의 거리로, 마자골목으로 쏟아져 나왔다.

봄이 되니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꽃축제 등 각종 축제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어 사람들을 집 밖으로 유혹한다.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만명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방안에 갇혀 살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듯하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경우,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즐거울수록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는 안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 전장에서 있었던 산악사고를 예를 들어, 봄철 안전한 등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한 하산과 안전귀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4일 저녁 6시경 진안군 장천면에 위치한 구봉산(해발 1002m)에서 00산악회 등산객 21명중 5명이 길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악회와 회원들은 하산할 무렵 몇몇 회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실종 추정 신고를 하였다.

진안 산악구조대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조난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접근을 시도하였다.

조난사고를 당한 5명은 통신망이 터



배형덕

진안소방서 진안센터 소장

지지 않는 골짜기로 내려간 터라 대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았다.

조난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8시 10분경, 산은 금새 어두워졌고 여동과 두려움에 필고 있을 조난자들을 찾기 위해 구조대원들의 필수적인 구조가 진행되었다. 구조가 완료된 시각은 밤 2시 50경이다.

폐닉상태에 빠져 있던 사고자들은 수 시간의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난을 당한 분들은 전문산악회 회원으로 수년간의 등산 경험이 있는 믿음직한 리더와 함께 등산을 했고, 등산 무리중 이탈자나 사고자가 없도록 5명당 1인을 팀리더로 정해서 체계적인 등산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조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왜일까? 우리는 등산 시 조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산행자에 대한 등산코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다. 산이 높을수록 등산로가 복잡하고 능선과 계곡이 많다. 등산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간 등산로 및 하산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서로간의 위치 파악을 통해서 회원들이 동일 등산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수 시간 확인하여 이탈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하여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 계획했던 하산길이 아닌 길로 진행되어 곤란해질 수 있다.

둘째, 육체적으로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적절한 하산 시간 설정이다.

아무리 준비 없이 자신의 신체 한계를 넘는 무리한 등산을 하다가 발목이나 허리 부상을 입는 사고가 가장 많다. 또한 등산은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하산 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하게 하산해야 한다.

셋째, 산행시 조난사고에 대비하여 핸드폰을 이용한 GPS 내위치 파악시스템 활용과 국가지침번호 표지판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때, 산행 중 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이 잘 터지는 곳 즉, 골짜기에서 능선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폰은 등산을 할 때 구조 위치를 알리고 119상황실과 통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산행하면서 간간히 보이는 국가지침번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위치를 의식하여 등산해야 조난시 재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

등산을 하면서 기상악화나 부상, 조난 등으로 인한 변수 및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항상 해야 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랜턴과 기온하강에 대비해 여벌 옷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다시피 안전사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책이 없으면 그만큼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가 크다.

여행을 떠나기 전 몇드러진 옷을 입고 기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높은 산을 등산하기 전에는 최소한의 체력단련과 등산 계획, 등산로 확인, 충분한 물과 식량준비, 등산로를 이탈했을 시에 대한 구조 대책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 산이 봄벌을 받아 노랑, 연두색, 핑크색, 초록색으로 물들어 산으로 오려고 손짓하는 듯 살레게 만드는 계절이다. 등산할 때, 오랜만에 상쾌한 산행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산행의 끝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귀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설

원불교 대각개교절(大覺開教節)

원불교 대각개교절은 원불교가 열린 날이다. 창시자 박종빈이 오랜 구도(求道) 끝에 깨달음(대각,大覺)을 얻은 날이다.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원불교가 시작(개교,開教)된 날로 경축하고 있다.

박종빈은 1916년 4월 28일(음력 3월 26일)에 대각하였다. 원불교 초기에는 음력으로 행사를 치르다가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4월 28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박종빈이 1891년 5월 5일(음력 3월 27일)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여 4월 1일부터 5월 5일에 이르는 기간을 대각개교 경축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각개교절이라는 표현보다 원불교 열린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특별 법회, 학술대회, 예술행사 등의 경축 행사를 하고 있다. 원불교 열린 날을 기념하여 은혜심기 운동, 은혜확산 운동 등의 사회 봉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월 28일에는 소태산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라는 큰 뜻 이외

에도 원불교 교도들의 공동 생일을 기념하는 명절로 보내기도 한다. 일반 종교에서는 교조의 탄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원불교에서는 교조가 깨달음을 이룬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육신의 태어남보다 깨달음을 더 중요시하는 원불교의 전통을 살려서 교도들의 정신적 각성을 장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광대는 2022년 원불교 대각개교절 은혜 나눔을 위한 프로그램을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했다. 5월 28일까지 교내 학생회관 앞 '감사 잘할 부스'에서 이어간다. 감사 염사쓰기 및 보내기, 칭찬 릴레이 등을 통해 일상에서 감사생활이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원광학원 이사장의 설법 '다 같이 다 함께'와 교구 합창 공연 등이 펼쳐졌다. 대학 구성원들이 건학이념을 체득하고, 서로 간에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술한 도내 돌봄교실

전북도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이 극히 허술하다. 특히 운영비가 교육부 기준치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적은 탓에 서비스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2018~2021년) 돌봄교실 재정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초등학교 6곳은 돌봄교실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용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어느 학교는 2,500여만 원을 교직원 휴게실 소파와 컴퓨터를 사는 데 썼다.

공기청정기와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구매해 급식실이나 일반 교실에 설치하는 등 모두 3,73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곳도 있었다.

오후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는 보조금을 안주고 반대로 수요가 적은 학교는 보조금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어느 학교는 오후 돌봄 신청자가 적은데도 대기 인원조차 전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금이 계속 지원됐다. 반면 대기자가 많은 14개 학교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돌봄교실 운영비 자체를 축소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돌봄교실 운영비 단위비용은 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단위비용(2,448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간식비 등을 중심으로 돌봄교실 운영비 단위비용을 전년 대비 5.2%(12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거꾸로 14.8%(160만원)을 감액했다.

돌봄교실 운영비 자체 단위비용이 프로그램 운영비(1,520만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돼 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독자제언

보행자 보호 바르게 알고 꼭 실천하자

2022년 한해 교통안전 트렌드는 한마디로 「보행자 보호」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4월 20일 시행된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필두로 더욱 강화된 보행자 보호가 급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 중 40%를 육박하고, 그 중 노인 사망사고는 60%를 차지할 정도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순발력 저하, 난청 등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상황은 갈수록 노출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보행 중 사고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

급년 7월 12일 시행되는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은 이렇다. 먼저, 그동안 횡단보도 초록색 등화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했던 변경 후에는 통행할 때 외에 통행하

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가 의무화 됐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고 일단 보고 뛰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세 번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이다.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를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외의 공간 아파트 단지, 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양은옥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어머니날 외치는 “내 아들 어디에”



어머니날인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실종자 어머니'들이 실종자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2006년 정부의 대규모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지금까지 약 10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ter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The text includes: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